

“잡월드·국가정원 고용 문제 순천시가 해결하라”

노조, 순천시청 인근서 천막 농성 매년 되풀이 집단하고 철회 요구 순천시 “해고 절차상 하자 없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지부와 순천만국가정원-잡월드 노조 등은 순천시청 정문에서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집단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잡월드에 반복되는 집단해고와 구조조정을 철회하라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어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잡월드 노조는 지난 8일부터 순천시청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집단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운영대행사(순천만국가정원)와 민간위탁(순천만잡월드)을 준 순천시를 상대로 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노조는 “매년 반복되는 상시 집단해고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내년 4월 열리는 2023정원박람회 사전 준비와 사

후철거 기간(2023년1월1-3월31일), 박람회 이후 재개장 기간(2023년11-12월) 등 총 5개월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순천만잡월드 노조는 “위탁사인 드림잡스들이 상여금 미지급과 시에 말도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등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시는 제대

로 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공무원 노조 순천시지부에 대한 노관구 시장의 과오를 떠올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고용 문제는 계약기간 만료(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분담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박람회 개최 전 휴장기간에는 부득이하게 고용할 수 없고, 박람회 개최 시기인 4월에 맞춰 고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순천만잡월드와 관련해서는 “시와 사전 협의없이 구조조정 계획을 노조 측에 일방통보한 위탁사에 경고조치했다”며 “시는 회계감사와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사에 계약 상황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빠른 시일 내로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특별한 날 행복한 추억 남기기 순천시 ‘혼인신고 포토존’ 인기 시청 민원실·해룡면 추가 설치



순천시가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확대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는 혼인신고 부부에게 특별한 날의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시청 종합민원실 및 해룡면 상삼출장소에 설치했다. <사진>

혼인신고 포토존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상징인 호수정원을 배경으로 ‘우리 혼인신고 했어요’라는 문구와 혼인신고 날짜를 표시해 기념일의 감동과 기쁨을 추억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과 아름다운 꽃장식, 셀카 거치대, 폴라로이드 카메라, 부케 등이 비치돼 있다.

순천시는 앞서 해룡면 신대출장소에 포토존을 설치, 운영해 왔다. 순천시에서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는 1년에 1026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이 신혼부부들에게 특별한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 유당공원 12월 한달간 동물원 변신

작가 14명 참여 예술동물원 코뿔소·북극곰 등 작품 전시

“알뜰달록 광양 유당공원으로 놀러오세요” 광양 유당공원이 12월 한달 상상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으로 관광객들을 초대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유당공원에서 지역작가를 포함 부산과 군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14명(팀) 작가들이 펼치는 ‘광양 유당숲을 거니는 예술동물원’이 열린다.

“자연, 동물 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백년을 끌어 온 아름다워 겨울 나뭇들 사이로 기린, 코뿔소, 북극곰, 고래 등이 어우러진 풍경을 연출한다.

강용민 작가의 ‘온고지신-북극곰’은 단군신화에 등장했던 곰이 환경변화의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동지 속 새알을 형상화한 김정화 작가의 ‘자유 가능성’은 철새도래지로 대표되는 부산 다대포에 내려오는 어업용 페스티코폼과 파도에 마모된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이 외에도 강운문, 방우송, 위재한, 아트주+이이남스튜디오 등 개념 있는 작가들이 자연과 환경, 동물과 인간에 대해 던지는 질문을 담은 37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눈으로만 감상해야 했던 기존 전시와



광양 유당공원에 설치된 광양 유당숲을 거니는 예술동물원 조형물.

는 달리 만져보고 체험하는 등 오감을 충족할 수 있는 전시여서 어린이 관람객들의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유당공원에 물려온 곰, 코뿔소, 돼지, 기린 등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보물찾기하듯 찾아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인구 확대·일손부족 해소 도움

보성군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됐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특별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치 정착 및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인구 증대, 인력난 해결,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요건은 지역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TOPIK 3급)을 갖춘 국내 전문 학사 이상 소지자로 보성군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이다.

2년 이상 보성군에 실거주하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배우자 또는 자녀) 보성군으로 이주한 사람도 대상이다.

보성군은 앞으로 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공단지 및 제조업, 노인 돌봄 직종 등에 해당 인력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동남 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이 보성군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 정착 촉진으로 지역 인구 확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대상’ 수상

3개 마을, 사업비 1억원 확보

곡성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상여금 1억원을 확보했다. <사진>

곡성군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이 말발이 돼 개방형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적 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했다. 마을에 찾아가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워킹숍,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곡성군 지역활동가 양성·운영, 마을 사업 메뉴판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 전라남도 우수 으뜸마을로 오산 관음사마을, 석곡 유평마을, 오곡 오지5구마을 3개 소가 선정됐다. 우수 으뜸마을은 2000개 마을 중 50개 마을만 선정해 2023년도 추가사업비로 200만 원씩 지원받는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00개 마을을 선정한다. 마을의 환경개선과 경관개선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매년 300만 원씩 3년간 총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2023년부터는 마을당 500만 원씩 지원받는다.



이번 평가는 으뜸마을 참여도, 추진단 운영실적, 중점사업 예산 비율 등 정량평가(60점)와 이미지 평가 및 우수사례지 평가인 정성평가(40점)에 중점을 뒀다. 6개 우수 시군을 선발하고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시상 등급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 92개 마을이 으뜸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사업이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여 더 성숙한 주민자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창태 기자 pit@kwangju.co.kr

보성읍 희망드림협의회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보성읍 희망드림협의회(위원장 조영우, 김재균)는 최근 ‘사랑의 쌀 나눔(미)’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시작된 ‘사랑의 쌀 나눔(미)’ 행사에는 지역 주민, 출향 향우, 기관·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총 3520kg(20kg 176포)의 쌀이 기탁됐다. 후원받은 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곳, 경로당 48곳, 취약계층 45가구 등에 전달됐다. <보성군 제공>

여수시, 입식테이블 지원 호응 올해 27개 업소 298세트 교체

여수시가 선진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음식점업 27개소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해 총 298세트(의자 포함)를 교체했다.

업소 당 지원하는 보조금도 기존 10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해 교체 비용의 50%는 보조금(총 4500만원)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영입주가 부담했다.

좌식 식사 문화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입식 문화에 익숙한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도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한다.

여수시는 2015년부터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관내 음식점업 262개소의 입식테이블 2880세트 교체를 지원(보조금 2억7000만원)했다.

시는 음식점업은 물론 시민·관광객의 호응이 높아 외식환경 개선을 위해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교육지원청 협력사업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공모 선정

구례군 구례교육지원청과 공동 추진하는 교육부 2023년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구례군은 2020년도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미래교육지구는 지역 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이에 구례군은 구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신청해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지난 6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구례군은 구례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3년째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마을 연계 구례 맥 잇기 교육과정 ▲친환경 생태교육 및 여순사건 바로알기 마을교과서 제작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구례 지역자원을 활용한 구례 맥 잇기 교육과정 운영 ▲구례 맥 미래교육 지원 ▲은 마을 배움터 조성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석창사거리~중흥지구 연관단지 도로변에 조성된 미세면지 차단숲.

여수시, 국가산단로 ‘미세면지 차단숲’ 조성

석창사거리~중흥지구 3.5km

이팝나무 등 1만 6600그루 식재

여수시가 석창사거리~중흥지구 연관단지 도로변에 ‘2022년 미세면지 차단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분 사업으로 여수산단로 3.5km 구간에 이팝나무, 애기동백, 서양측백 등 1만 6600그루의 수목을 식재하고, 상층목, 중층목, 하층목의 3단 다층 구조로 가로숲 길이를 조성했다.

특히 애기동백, 이팝나무, 금목서, 꽃댕강나무 등 꽃피는 나무 위주로 식재해 삭막했던 산단단지 진입도로에서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가로숲 길

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여수 국가산단 미세면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수국가산단단지 일원 18km 구간에 미세면지 차단 숲을 조성해 산단의 근로환경과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까지 14.5km 구간에 17만 4197그루의 수목을 식재했으며, 내년에는 나머지 구간에도 미세면지 차단 숲을 조성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산단 내 미세면지 차단숲 조성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미세면지가 주거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